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성격 5요인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의 차이

-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이진우

# 성격 5요인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의 차이

-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동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이 진 우

교육학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김 창 대           (인)

부위원장           신 윤 정           (인)

위     원           김 동 일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국내 대학생들의 성격 5요인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탐색하고, 성격 5요인 잠재 프로파일 유형 별 대학생 핵심역량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960명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자료 중 문항 일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외한 총 92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5.0을 이용해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Mplus 7.4를 이용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해 성격 5요인의 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였고, ANOVA 분석을 통해 성격 5요인 프로파일 유형 간의 성격 5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DU3STEP을 적용한 보조접근법을 통해 프로파일 유형 간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4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은 보류집단(잠재집단 1, 11.8%), 과잉통제집단(잠재집단 2, 27.4%), 평균집단(잠재집단 3, 52.5%), 적응집단(잠재집단 4, 8.3%)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류집단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수준이 낮고 안정 욕구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잉통제집단은 개방성과 외향성 수준은 낮고, 성실성, 친화성, 안정 욕구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집단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안정 욕구 모두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응집단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수준이 높고, 안정 욕구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 잠재집단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의 7가지 구성요소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능력’, ‘가치관 및 태도’는 적응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이, 그리고 보류집단은 가장 낮았다. ‘창의성’은 적응집단, 평균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과잉통제집단과 보류집단은 가장 낮았다. ‘리더십’ 및 ‘대인관계 능력’은 적응집단, 평균집단, 과잉통제집단, 보류집단 순으로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성격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중심접근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성격 프로파일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성격 프로파일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성격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하였던 성격이라는 개인내적 변인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격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대학생 핵심역량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성격 5요인 검사를 활용하여 한 개인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성격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핵심역량 측면에서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적·상담적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격 5요인, 잠재프로파일분석, 대학생 핵심역량

**학 번** : 2020-21672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문제 .....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	8
제 1 절 성격 5요인 .....	8
1. 성격 5요인 개념 및 특성 .....	8
2. 성격 5요인의 구성요인 .....	9
3. 사람중심 접근법과 성격 5요인 .....	11
제 2 절 대학생 핵심역량 .....	15
1. 핵심역량 개념 .....	15
2. 대학생 핵심역량 개념 .....	16
3. 대학생 핵심역량 구성요소 .....	17
4. 대학생 핵심역량 선행 연구 고찰 .....	19
제 3 절 대학생 핵심역량과 성격 5요인 .....	23
제 3 장 연구 방법 .....	27
제 1 절 연구 대상 .....	27
제 2 절 측정 도구 .....	28
제 3 절 자료 분석 .....	30
제 4 장 연구 결과 .....	32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32
제 2 절 성격 잠재프로파일 분석 .....	35

제 3 절 성격 프로파일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차이	41
제 5 장 논의 및 제언 .....	43
제 1 절 논의 .....	43
제 2 절 의의 및 제언 .....	49
참고문헌 .....	52
Abstract .....	63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7
[표 2] 주요 변인 기술통계량 .....	32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	34
[표 4]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	37
[표 5]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하위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	37
[표 6]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하위요인 ANOVA 분석 결과 .....	40
[표 7]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차이 .....	42

## 그 림 목 차

[그림 1] 잠재 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 정보 적합도 지수 .....	36
[그림 2]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양상 .....	38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Erikson(1986)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단계인 청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개인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으로 인해 높은 학문적 요구 및 새로운 동료와 교수자와 적응하는 등의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도전을 수반한다. 또한 이 시기의 개인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 직업 선택 및 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준비하게 된다(Clark & Schroth, 2010). 따라서 이 과정에 잘 적응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안정적인 생활뿐 아니라 성인기 적응에도 원만한 생활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Bardy-Amoon & Fuertes, 2011; 김영숙, 조한익, 2015; 김지근 외 2015; 염정원, 조한익, 2016).

Capsi와 Moffitt(1993)의 강조이론(accentuation theory)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와 같이 새롭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개인의 적응 및 행동 패턴은 성격과 같은 개인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에 의지한다. 대학생들의 생활 적응 및 수행과 관련된 변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격이나 자존감, 자기 효능감 등 안정적인 개인 내적 요인들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학생들의 능력을 강력하게 예측하였다(Crede & Neihorster, 2012). 또한 Wasktaar와 Torgensen(2010)은 자아탄력성, 성격 등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들 중에서도 성격이 학교에서의 성공, 부적응 및 외로움을 더 잘 예측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한 개인의 이행시기에 있어 성격의 개인차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Poorthuis et al., 2014; Semeijn et al., 2020).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성격이론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안정적

인 것으로 거론되는 이론에는 성격 5요인 모델(김동일, 2022; Costa & McCrae, 1992)이 있다. 성격 5요인 모델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이라는 서로 독립된 5가지의 요인들이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았으며(McCrae & Costa, 2004), 이에 성격 5요인 연구들에서는 각 성격 요인들과 변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외에서는 성격 5요인이 사회불안(Kaplan et al., 2015), 직무수행(Alessandri & Vecchione, 2012), 학업성취(Paunonen & Ashton, 2001), 대인갈등 대처방법(Lee-Baggley et al., 2005), 국외 거주자 적응(Bhatti et al., 2014), 정신건강 및 직업적 성공(Judge et al., 1999) 등의 변인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정순우, 2012), 학업소진(박일경 외, 2010), 주관적 안녕감(모화숙 외, 2013), 대학생활적응(이귀숙 외, 2016), 조직수행(김도영, 유태용, 2002) 등의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변수중심 접근법(variable-centered approach)을 활용한 성격 연구의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다(Holloway et al., 2017). 먼저 특정 성격 요인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비일관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Crede와 Niehorster(2012)은 외향성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외향적인 학생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빠르게 형성하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소홀해진다고 보았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높은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하였고(Thiele et al., 2018), 박지윤과 박용한(2019)의 연구에서도 외향성이 높은 학생들 중 성실성이 함께 높은 학생들은 도움요청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높은 학업 수행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단일한 성격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한 개인의 수행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또 다른 한계점은 성격 5요인들 간의 높은 상관성이다. McCrae와 Costa(2004)은 성격 5요인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 모형의 5개 요인은 독립된 구인으로 추출되고 개념화되었으며, 성격 5요인 간에는 공유된 변량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Barbarnelli & Caprara,

2000; Benet-Martinez & John, 1998; Mount et al., 2005; Hong et al., 2008)은 성격 5요인 간의 중간 또는 그 이상의 강한 상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역과 상관없이 신경증을 제외한 4 가지 성격 요인들(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신경증은 다른 성격 요인들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Schmitt, Allik, McCrae, & Benet-Martinez, 2007). DeYoung(2006)는 성격 5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위 구조에 있는 2차 요인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DeYoung(2006)은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신경증과 반대 개념)으로 이루어진 안정성과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이루어진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성격 5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상호작용을 고려한 성격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전통적 변주중심 접근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람중심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중심접근법은 개개인의 특성을 몇몇의 변수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상호관계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여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이러한 사람중심접근법은 성격 5요인과 같이 각 요인들 간의 특성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Merz & Roesch, 2011).

대표적인 사람중심접근법에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가 있다. 이는 개인들과 이들의 반응양상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표본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수 점수들의 결합을 규명하며, 어느 하나의 프로파일로 분류된 응답자들이 여러 측정에서 유사하게 답변하는 확률 기반의 프로파일 그룹으로 개인들을 분류할 수 있다(Collins & Lanza, 2009; Holloway et al., 2017). 사람중심접근법은 앞서 언급한 성격 5요인의 5가지 개인 성격의 유형을 조합하여 성격 프로파일 유형 탐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대상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성격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탐색된 성격 프로파일 유형별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동패턴이나 특성과의 연관성을 파악함

으로써 프로파일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Merz & Roesch, 2011; Perera et al., 2015; Wall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과 대학생들의 대학 적응과 관련된 특성들 간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대학생들의 성격 프로파일 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 다음, 잠재프로파일분석법을 통해 추출된 성격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대학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불확실하고 급박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는 기존의 대학생들의 수행 및 적응 수준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에 사용했던 학업성취도(학점 등)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최정윤, 2009; 이병식, 최정윤, 2008). 이에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주목하고 있다(소경희 외, 2013; 하병학 외, 2016). 역량(Competency)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함한다(진미석 외, 2011). 역량의 개념은 주로 기업적 맥락에서 경쟁우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편화 되었으나(Prahalad & Hamel, 1990), 최근에는 특정 직무나 업무 맥락을 넘어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소경희, 2009). 핵심역량에 포함되는 역량들에 대해서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DeSeCo, 2005), 한국교육개발원(김안나 외, 2002; 유현숙 외, 2002; 유현숙 외, 2004) 및 각 대학별(이애화, 최명숙, 2014; 고진영, 정기수, 2017)로 5-11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김동일 외(2009)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고등교육단계 수행 및 적응에 필요한 영역들을 포괄하는 대학생 핵심역량 7가지(‘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가치관 및 태도’)를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핵심역량은 대학에서 당면한 과업 수행 및 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동일, 2020a). 구체적으로 학업 성취도(김연희 외, 2011; 이장익, 김주후, 2012; 황지원 외, 2016; 손수경 외, 2019), 학업적 효능감(김아영, 차정은, 2003; 하병학 외, 2016; 이혜주,

2021), 학습동기(유순규, 김은주, 2016), 학습전략(이혜주, 2021), 학업적 흥미(김지효, 박성만, 2020) 등과 같은 학업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황수영, 2021), 전공 몰입(하병학 외, 2016), 대인관계 만족도(남창우 외, 2016)와 같은 대학 생활 적응에 관련된 변수들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로 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이숙정, 2013)과 같은 진로 관련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핵심역량과 성격 5요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나, 핵심역량의 구성 변인들과 성격 5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핵심역량과 유사한 변인인 학업적 수행 및 전공 내 수행능력은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친화성에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Kornaraju et al., 2019; Trapmann et al., 2007; Smidt, 2015; Farsides & Woodfield, 2003). ‘논리적 사고력’ 핵심역량은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친화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oslan et al., 2021; Chamorro-Premuzic & Reichenbacher, 2008), ‘학습능력’ 핵심역량 역시 성실성과 친화성과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Bidjerano & Yun Dai, 2007; Chamorro-Premuzic & Furnham, 2009; Premuzic & Furnham, 2009; 최보라, 2014). ‘창의성’ 핵심역량은 개방성 뿐만 아니라 외향성에도 정적 상관을 보이며(윤정진, 김경은, 2012; 성은현 외, 2013), ‘리더십’ 핵심역량은 리더십 유형과 관련없이 성실성이 일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권선영, 2009; 하문선, 2017; Hassan et al., 2016), 이 외에도 개방성, 친화성, 외향성이 리더십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권선영, 2009; 하문선, 2017; Hassan et al., 2016). ‘대인관계능력’ 핵심역량은 친화성과 외향성이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Wolff & Kim, 2011; Harris & Varize, 2016), ‘가치관 및 태도’ 핵심역량은 성실성과 친화성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Kalshoven et al. 2011; Karim et al., 2008).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보았을 때, 대학생 핵심역량은 성격 5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격 5요인에 따라 대학생들의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의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격 유형을 기반으로 도출된 대학생들의 성격프로파일 유형의 양적 및 질적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잠재프로파일분석에 따라 도출된 성격 프로파일 별 대학생 핵심역량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성격 5요인

#### 1. 성격 5요인 개념 및 특성

성격이란 개인의 행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독특성 성향을 말한다(김동일, 2022; Ozer & Benet-Martinez, 2006; Randolph & Dahling, 2013). 성격특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을 분류하는 것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노안영, 강연신, 2003).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며 개인차를 나타내는 성격 특성들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Goldberg, 1990). 이 중 많은 심리학자들로부터 성격 5요인 모형이 성격 특성의 개인차를 설명하고 개인의 성격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폭넓게 수용되고 인정되어 왔다(Costa & McCrae, 1992; Digman, 1990).

성격 5요인 모형은 Tuppe와 Christal(1961)과 Normanj(1963)의 자연발생 언어 형용사 연구에 의해 처음 규명되었다. 그들은 자기보고식 및 타인 평정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과 영어, 독일어 및 다양한 언어를 포함한 성격 측정도구들에서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및 성실성의 요인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후 Costa와 McCrae(1980)는 16 Personality Factor Scale(16PF; Cattell et al., 1970)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성격의 3가지 영역을 규명하였다. 성격의 3가지 영역은 신경증(Neuroticism: N), 외향성(Extraversion: E) 및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O)이다. 3가지 성격을 규명한 후 McCrae와 Costa(1983)은 이 3가지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을 포함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자기보고식 및 배우자



평정을 통해 성격의 3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3요인 구조에 대해 Digman과 Takemoto-Chock(1981), Goldberg(1983)는 성격 3요인 구조가 불완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Costa와 McCrae(1992)는 이 비판을 수용하여 친화성(Agreeableness: A)과 성실성(Conscientiousness: C)을 측정하는 도구를 덧붙여 성격 5요인 및 성격 5요인 측정도구인 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NEO-PI-R)을 출판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성격 5요인의 기본 요인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성격 요인 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특히, 신경증은 정신병리적 의미와 혼돈을 주어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서적 민감성, 혹은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와 반대)이라는 용어가 제안되기 하였다(Howard & Howard, 2011). 또한 김동일(2012)은 개인의 약점이나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이희경, 이동귀, 2007)을 반영하여 안정 욕구(Need for stability)라는 명칭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김동일(2022)의 연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신경증, 정서적 민감성,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명명되던 성격 요인을 안정 욕구로 명명하고자 한다.

## 2. 성격 5요인의 구성요인

### (1) 개방성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선호하며, 낯선 것에 대한 인내와 탐색의 정도를 통해 설명한다. NEO-PI-R 검사 중 개방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상상력, 심미, 감수성, 지적 호기심, 가치 개방성이 있으며(Costa & McCrae, 1992), K-OCEAN 성격 5요인 검사 중 개방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상상력, 관심의 다양성, 변화 추구, 조망, 개방성이 있다(김동일, 2022).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추구하고 변화에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Miserandino, 2013). 또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독창적이고 독립적이며 예술적,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낮은 사람은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김아름, 2005).

## (2) 성실성

성실성은 규범과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해 맡은 것을 성취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목표 지향적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기부여하는 정도로 측정된다(Costa & McCrae, 1992). NEO-PI-R 검사에서 성실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자기 유능감, 질서, 성취 지향, 자율, 신중, 의무 준수 등이 포함되며(Costa & McCrae, 1992), K-OCEAN 성격5요인 검사에서 성실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꼼꼼함, 조직화, 포부, 집중, 계획성이 포함된다(김동일, 2022).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따라 과제 조직력과 성취욕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John et al., 2008). 반면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과제나 일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산만하며 분명한 목표가 없어 나태한 삶을 살 수 있다(박기인, 2019).

## (3) 외향성

외향성은 사람들과 교제를 선호하고 관계를 주도하려는 특징을 가지며,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의 강도와 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NEO-PI-R 검사에서 측정하는 외향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사교성, 자기 주장, 긍정 정서, 온정, 자극추구, 활동성이 있다(Costa & McCrae, 1992). K-OCEAN 성격5요인 검사에서의 하위요인에는 사회적 친밀성, 그룹 지향성, 활동 수준, 자기 주장, 타인 신뢰가 있다(김동일, 2022). 외향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사회적 교류 활동을 좋아하며 자극과 흥분을 즐기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하고 수줍은 경향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John, 1990; 최지연, 2015).

## (4) 친화성

친화성은 우호성, 적응성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대인관계 지향성에서 개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NEO-PI-R 검사에서의 하위 요인에는 신뢰, 정

직, 이타성, 순종, 겸손, 온화함이 있고(Costa & McCrae, 1992), K-OCEAN 성격5요인 검사에서의 하위 요인에는 상냥함, 협동성, 예의, 조화, 조직 지향성이 있다(김동일, 2022).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따뜻하고 타인을 신뢰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도와주며 관대하고 양보심이 많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며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고 무례하며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권석만, 2015; 박현량, 2018).

### (5) 안정 욕구

안정 욕구는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역 지표이다. 안정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정서적으로 불안, 우울 및 자극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잘 견디지 못하여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높은 특징이 있다(Soto & Jackson, 2013; 김동일, 2012). 그리고 부정 정서를 잘 느끼고 그러한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괴로움과 불행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 긴장, 좌절, 불안은 낮은 자존감, 비합리적인 사고, 과도한 열망과 충동, 신체화 증상, 부적응적인 대처 방식과 관계가 있다(McCrae & Costa, 1987). NEO-PI-R 검사의 안정 욕구 하위 요인들은 불안, 적대감, 충동성, 우울, 자의식,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있으며, K-OCEAN 성격5요인 검사에서는 성격 5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을 세밀하게 측정하고자 11개의 하위요인(불안, 우울, 신체기능 이상, 공격성, 충동성, 비현실성, 사회적 고립, 피해의식, 과잉행동, 집중력 부족, 충격적 사건 경험)로 구성하였다.

## 3. 사람중심 접근법과 성격 5요인

성격 5요인을 활용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성격요인 유형과 다양한 결과변인 간의 선형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변수중심접근법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변수중심접근법에 기반을 둔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을 위하여 활동된 샘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각 샘플별 속성을 그저 동질적이라고 간주하는 데에서 기인을 한 것이다. 즉, 변수중심접근법은 다차원 성격유형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5가지 성격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함과 동시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중심접근법에 기반을 둔 프로파일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성격 5요인 이론에 기반을 둔 성격 프로파일 연구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그나마 수행된 사람중심접근법의 프로파일 연구는 군집 분석을 활용한 프로파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혜원 외(2017)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그릿 군집 유형(그릿 상위집단, 지속적 관심 상위집단, 꾸준한 노력 상위집단, 그릿 하위집단)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김홍태 외(2014)는 생물에 대한 흥미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군집 유형별 성격 5요인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에서 안정 욕구를 제외한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희와 양난미(2015)는 대학생들의 음주동기를 유형화하여 성격 5요인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은 음주 동기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변인들마다 다른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격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개개인의 성격 유형은 다양한 변인들과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군집분석을 활용한 몇몇 선행연구가 수행되어졌으나, 최근 성격 관련 연구들은 군집분석이 아닌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와 같은 고급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군집분석 활용은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중심접근법의 기반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군집분석과 LPA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집분석은 LPA와 같이 프로파일 유형을 탐색하는 대표적인 사람중심접근법으로 유사한 성향이나 특성을 지닌 대상을 동질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Aldenderfer & Blashfield, 1984). 하지만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군집분석을 활용한 방법론에 대한 강한 의

구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Meyer & Morin, 2016; Oh, 2019; Vermunt & Magidsn, 2002). 먼저, 군집분석은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 수를 정함에 있어 집단별로 개체 수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군집분석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하지만 군집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군집의 수가 결정된다(Muthen & Muthen, 2000; Meyer & Morin, 2016). 또한 군집분석은 측정 척도의 집단 유형화를 위한 알고리즘에 따라 상이한 결과 값을 보이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군집분석을 활용한 프로파일 도출에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였다(Howard et al., 2016; Oh, 2019). 이러한 군집분석에서 오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LPA를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Meyer & Morin, 2016).

LPA는 통계적 적합지수를 제시하여 자료 중심에 예상되는 프로파일을 추출함으로써 체계적인 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군집분석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Lubke & Muchem, 2005). LPA는 수집된 자료들의 상호독립성을 전제로 하나의 집단에서 점차 1개씩 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최종 모형을 추정하게 된다. 최종 모형의 잠재프로파일 수는  $k$ 개 프로파일 모형과  $k-1$ 개의 프로파일 모형의 유의성 비교, Entropy 지수 등을 활용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잠재프로파일 추정을 위한 통계적인 적합지수로는 수치가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가 활용된다. 한편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 Entropy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관측 대상이 정확한 프로파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하며,  $K$ 개 프로파일과  $k-1$ 개의 프로파일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LMR-LRT(adjusted Lo-Mendal-Robin's Likelihood ratio test) 지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모형은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제공한다(Lubke & Muthen, 2005; Morin et al., 2016; Oh, 2019).

이러한 통계적 모형적합도 지수에 기초하여 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기에 최근에 성격프로파일 연구는 LPA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Merz & Roesch, 2011).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성격프로파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성격 5요인 이론을 기반으로 LPA를 활용하여 수행된 성격프로파일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Merz & Roesch, 2011; Ferguson & Hull, 2018; Leikas & Salmela Aro, 2014; Zhang et al., 2015; Wall et al., 2019; 이한우, 김정은, 2017; 오현성 외, 2020). 성격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에서 균일하게 도출되는 성격 프로파일 유형은 3가지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도출된 성격프로파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Well-adjusted 혹은 Resilient’으로 명명되는 유형으로 안정 요구는 평균 혹은 낮은 수준이면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두 번째는 ‘Ordinary 혹은 Averaged’로 명명되는 유형으로 5가지의 성격 요인이 모두 평균 수준인 집단이었다. 마지막은 ‘Anti-resilient, Non-desirables, Rigids, 혹은 Distressed’로 명명되는 프로파일 유형으로 평균 혹은 높은 수준의 안정 욕구와 유의미하게 낮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수준이 나타나는 집단이었다. 그 외에도 낮은 외향성과 개방성-높은 친화성과 성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Over-controlled, 혹은 Reserved’ 집단, 높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평균 수준의 성실성을 보이는 ‘Confidants’ 집단, 그리고 높은 안정욕구와 개방성-중간 수준의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을 보인 ‘Excitable’ 집단 등이 있었다.

성격 프로파일 연구에서는 도출된 프로파일별 직장인들의 자존감, 업무열의, 직무만족, 우울증(Merz & Roesch, 2011; Wall et al., 2019), 그리고 대학생의 전공만족 및 편입의도(오현성 외, 2020), 회복탄력성(오현성 외, 2020) 간 연관성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성격 5요인 성격유형의 조합을 통한 대학생들의 성격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성격프로파일 유형 간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간 어떠한 통계적 차이점 및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 제 2 절 대학생 핵심역량

### 1. 핵심역량 개념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경영의 맥락에 역량(Competency) 개념을 적용하여 파생시킨 용어이다(Poerter, 1980; 이장익, 2012). 역량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표준국립대사전, 2014). 직무수행의 맥락에서는 역량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는 지식, 기술, 태도로 표출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찬 외, 2010)”으로서, 개인의 성과를 좌우하는 특수하고 차별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핵심역량은 특정 직무 상황에서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량 개념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았다(이찬 외, 2010).

핵심역량은 기업환경의 조직수준과 개인수준 그리고 특정 직업수준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예측해왔다. 조직수준에서는 경쟁조직이 갖출 수 없는 각 조직 특유의 차별화된 지식, 기술, 태도의 결정체이며, 조직의 미션과 전략을 달성하고 나아가 기업문화를 창출하도록 만들어 주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진모, 2001). 개인수준에서는 Dubois(2003)가 기업 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직업 수준에서는 정성희(2004)가 비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 태도, 경험으로 핵심역량을 정의한 바 있다.

한편, 핵심역량의 개념은 기억 상황을 넘어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생애 진로환경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으며, 나아가 일반 교육 차원에서도 역량 기반 교육 과정 담론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이장익, 2012). 이와 같은 적용범위 확장의 기저에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사회적 배경이 자리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간 및 직업간 이동성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Fugate et al., 2004; Hall et al., 2007).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전 국민이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이 생애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심역량은 기업환경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능력으로서의 핵심역량은 핵심기술, 생애기술, 혹은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박민정, 2009). 이 용어들은 적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삶의 능력과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진미석, 2012).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생애기술로서의 핵심역량은 나아가 일반교육분에도 역량을 미치게 된다(박민정, 2009). 전체 학교 급의 교육에서 핵심역량 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대학교육에서 두드러진다. 지식의 소유를 넘어 “사회적 환경(social ecology)”에 대한 “개인의 수행성(performacity)”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의 책무성의 맥락에서 핵심역량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손민호, 2006). 일반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의 개념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는데, 학생들이 교육기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자생하기 위해 길러주어야 할 기본적 및 공통적 능력을 사용된다. 김안나와 이병식(2003)은 “향후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을 “직업능력의 구성요소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의미로 사용된 바 있다(정철영 외, 1998; 진미석 외, 2012).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핵심역량은 21세기의 삶과 직업생활에서 단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넘어 “전통적으로 지적이지 않은 무언가(류성창, 2012)”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기업 상황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일반교육의 영역으로까지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은 본래의 특수하고 차별적인 개념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

## 2. 대학생 핵심역량 개념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노동시장의 요구와 고등교육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장익, 김주후, 2012). OECD(2003)는 대학생 핵심역량을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졸업 후 학생들이 사회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안나와 이병식(2003)은 기초 소양뿐만 아니라 기초공통학습단계에서 습득한 기본 능력을 심화하고 장차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능력으로서 스스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역량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박성미(2011)는 개개인의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기보다는 대학 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직업능력요소로서 지식, 기술, 태도를 구명한 바 있다.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2011)는 대학생이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동일한 관점에서 K-CESA역시 핵심역량을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진미석 외, 2012; 정철영 외, 1998). 유현숙 외(2004)와 김동일 외(2009)는 대학생 핵심역량을 고등교육단계에서 적용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전 교육단계에서 습득된 기초 소양을 심화·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마련하여 하기 위한 개인적·사회적·관계형성 능력 등을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 핵심역량은 개인이 가져야할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을 지칭한다. 둘째, 대학교육의 내용이 직업세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반영한다. 셋째, 고등교육단계에서 적절한 수행과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지칭한다.

### 3. 대학생 핵심역량 구성요소

대학생 핵심역량은 어떤 유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떤 맥락에서 역

량을 추출할 것인가가 주요 사안이 된다(진미석, 2013). 대학생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는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을 통해 도출되며, 이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직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찬 외, 2009). 대학생의 핵심역량 추출을 위한 역량모델링은 졸업 후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예측하는 역량 영역을 결정한다. 조직상황에서의 역량도출과는 달리 노동시장이라는 추출 배경을 공유함으로써 불구하고, 핵심역량 구성요소는 연구자 및 개발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OECD(2005)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상호작용적으로 도구사용 능력,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대학생 핵심역량의 범주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대학학습평가(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CLA)는 작문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분석적 추론력, 문제해결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 대학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정보문해력, 연구와 조사, 개인적·지적 자율성, 윤리적·사회적·전문가적 이해를 평가하며, 퀸즈랜드 대학에서 제시한 대학생 핵심역량 구성요소에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판적 판단능력, 전공분야의 폭넓은 지식, 윤리적·사회적 책임감, 독립성과 창의력을 포함한다. 미국 알버노 대학교는 의사소통능력, 분석능력 및 가치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글로벌 안목,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효과적 시민 및 심미적 참여를 포함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대학생 핵심역량 하위요소 논의는 대표적으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2016)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은 핵심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자기개발 가이드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개발하였다. K-CESA는 6가지의 핵심역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량, 종합적 사고력, 자기관리역량이 있다. 하지만, K-CESA의 하위요소들은 기업 역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출된 것으로 대학생들의 향후 직업 적응에

필요한 능력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고등교육현장에서의 적응 및 수행에 필요한 역량들을 동시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김동일 외, 2009). 이에 국내 몇몇 대학에서는 대학의 가치와 인재상에 맞춰 개발하여 활용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김혜영과 이수정(2013)은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활용, 글로벌,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 스트레스관리를 포함하는 핵심역량을 제안하였고, 노윤신과 리상섭(2013)이 제안한 대학생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는 사회적 공감력, 통찰력 사고력, 주도적 리더십, 전인적 품성, 예술적 감성을 포함하였고, 박혜정(2018)는 창의적 융합사고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현장적용 역량, 리더십 역량, 소통협력 역량, 사회책임 역량을 대학생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로 제안하였다. 김동일 외(2009)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생애능력 및 직장 수행 능력과 동시에 대학에서의 수행과 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대학생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 핵심역량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가치관 형성 및 태도라는 총 7가지의 핵심역량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김동일, 2020a).

이와 같이 대학생 핵심역량의 구송요소는 개별 사례에 따라 상이하며, 분류의 기준도 다양하다(백평구, 2013). 그러나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했던 각 시도들은 핵심역량이 기존 대학교육이 인지적 요소의 편협한 강조에서 벗어나 기술 및 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능력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이장익, 2012; 임동욱, 2004).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제안된 핵심역량을 포괄하고 있고, 대학생의 졸업 후 직업환경에서의 수행 및 적응 뿐 아니라 대학생활에서의 수행 및 적응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제작한 김동일 외(2009)의 대학생 핵심역량 구성을 채택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 4. 대학생 핵심역량 선행 연구 고찰

대학생 핵심역량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 핵심역량이 실제 학생들의 수행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먼저,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은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구성요소 중 논리적 사고능력이 수학, 통계학, 물리학 등의 기초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이 보였고, 전공수업의 학업성취도는 학습능력(자기관리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냈었다(황지원 외, 2016). 또한 핵심역량의 잠재계층에 따른 학점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전체 역량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에 비해 학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수경 외, 2019). 이해주(2021)은 대학생 핵심역량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특히 높은 대학생 핵심역량이 학습전략 중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지호와 박성만(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역량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학업적 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학업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핵심역량은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황수영(2021)은 대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및 행복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을 때, 핵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과 행복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전공 몰입 및 전공 만족도에도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병학 외, 2016). 이숙정(2013)은 자긍심, 리더십, 자기주도, 협동, 의사소통, 문제발견 등의 총 12가지의 대학생 핵심역량이 진로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미결정 수준에는 자긍심, 의사소통, 경험개방 역량이 부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에는 추진도전과, 국제적 감각, 경험개방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대표적으로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으로 분류하여 관련 변

인들의 영향력을 구명해왔다(백평구, 2013; 이병식, 최정윤, 2008; 김안나, 이병식, 2003).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에 대해서는 주로 대학의 특성과 대학생들의 대학 내 교육경험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현숙 외(2010)는 핵심역량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대학특성변인, 수업 외 학습과정변인, 수업 중 학습과정 변인을 설정하였다. 대학특성변인에는 대학 소재지, 설립유형, 입학유형, 대학 분위기 등이 포함되었으며, 수업 외 학습과정변인으로는 도서관 활용, 정보통신 기술 활용, 글쓰기 활용, 읽기 쓰기 분량, 다양한 배경의 동료들과의 교류, 공모전 등 자기개발 활동, 봉사활동 경험, 스터디 활동을 설정하였고, 수업 중 학습과정변인으로 협동 수업 준비, 사고력 증진 활동,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설정하였다. 유현숙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특성 변인보다 수업 중, 수업 외 학습과정변인이 핵심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안나와 이병식(2003) 역시 대학의 환경요인으로 기관의 특성(대학의 소재지, 설립유형, 대학의 분위기), 교육과정(능동적 학습, 강의의 질), 학생들의 활동 및 몰입도(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교류)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특성과 학생들의 대학 몰입도 및 활동이 교육과정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요인들 중 대학의 분위기, 강의의 질, 학생들의 몰입도 등이 핵심역량 개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개인의 특성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장익, 2012; 백평구, 2013). 먼저, 성별은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비해 논리적 사고력(이장익, 2012), 글로벌 역량(이장익, 2012; 이장익, 김주후, 2012),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이장익, 김주후, 2012), 대인관계역량(이장익, 김주후, 2012; 백평구, 2013) 수준이 높았다. 학년의 경우 김안나와 이병식(2003)의 연구에서는 영향력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학년 간 핵심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으며 특히 재학 연한이 많아짐에 따라 핵심역량 수준이 상승한다는 공통적인 연구 결과가 밝혀지기도 하였다(이장익, 2012; 진미석, 2013; 백평구, 2013). 그 외 대학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이장익과 김주후(2012)는 전공별 핵심역량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반면 백평구(2013)은 공학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높은 핵심역량수준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생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환경적인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개인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배경적 요인들에 치중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성격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 역시 한 개인의 적응과 수행을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Poorthuis et al., 2014; Semeijn et al., 2020), 대학생 핵심역량에 개인 내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제 3 절 대학생 핵심역량과 성격 5요인

대학생 핵심역량과 성격 5요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나, 핵심역량의 구성 변인들과 성격 5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김동일(2020a; 2020b)은 대학생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가치관 및 태도 총 7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먼저,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습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은 성격 5요인 하위요인 중 성실성과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성실성은 전공 학점이나 대학입학능력시험 등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Kornaraju et al., 2009), Trapmann 등(2007)은 메타분석을 통해 성격 5요인 하위요인들 중 대학 전공 내 학업 수행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실성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안정 욕구는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Smidt(2015)는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실성과 함께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이 학업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arsides와 Woodfield(2003)은 학업 성취에 성실성만큼 개방성과 친화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안정 욕구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안정 욕구는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통합적인 사고 및 분석적·합리적 사고 능력을 의미하는 논리적 사고력 역시 성격 5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Roslan 등(2021)은 체계적인 사고력이 성실성 및 친화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안정 욕구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끈기와 같은 성실성이 영향을 끼치고,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친화성은 문제 상황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안

정 욕구가 높을 경우 집중력과 유연한 사고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 등의 부정정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체계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다(Roslan et al., 2021). 다른 연구에서도 논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와 친화성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Charmorro-Premuzic & Reichenbacher, 2008). Zhang(2002, 2006)은 사고유형 중 논리적 사고 과 연관된 행정적(executive), 사법적(judicial), 군주제(monarchic), 계급제(hierarchic) 사고 유형에 성격 5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해가며 추진해나가는 행정적 사고 유형은 성실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판적인 태도로 판단, 평가, 비교를 하는 사법적 사고 유형은 외향성과 개방성이 정적인 영향을, 친화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군주제 사고 유형은 안정 욕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사고 유형인 계급제 사고 유형에는 성실성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2002, 2006).

주변 자원을 활용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나가는 능력인 학습능력은 성실성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Bidjerano & Yun Dai, 2007; Chamorro-Premuzic & Furnham, 2009).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요소로 시간 관리와 노력 관리를 나누어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노력 관리 차원에서 높은 상관을 보인 성격 요인이 성실성이었으며, 성실성 외에도 친화성, 개방성이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Bidjerano & Yun Dai, 2007). Chamorro-Premuzic와 Furnham(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실제 전략을 수행하는 것과 동기 측면에서 구분하여 접근하였을 때, 실제 전략 수행에는 성실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자기주도적 학습 동기에는 개방성과 외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최보라(2014)는 자기주도학습을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으로 구분하여 성격 5요인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기조절과 인지조절에는 외향성과 성실성이, 행동조절에는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안정 욕구 역 척도), 친화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창적인 사고와 융합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창의성 핵심역량은 다양한 성격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박지영, 2019; 윤정진, 김경은, 2012; 김경은, 2014; 성은현 외, 2013). 박지영(2019)은 창의성이 안정 욕구를 제외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 특히, 외향성과 친화성, 성실성은 높은 상관을 보였고, 개방성과는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윤정진과 김경은(2012)의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개방성이 대학생들의 창의성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은(2014)는 성격 요인들 간의 창의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격 5요인 중 개방성이 창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외에도 성실성과 친화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현 등(2013)은 예술적 창의성과 과학적 창의성을 구분하여 창의성에 성격 5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창의성의 종류와 무관하게 개방성이 모든 영역의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한다.

의사결정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전체 조망 능력 등을 포괄하는 리더십 핵심역량도 성격 5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선영, 2009; 하문선, 2017). 권선영(2009)는 리더십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행동 중심형, 보상 제공형, 건설적 사고형)하고 각각의 리더십 유형에 성격 5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유형과 무관하게 성실성과 개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ssan 등(2016) 또한 39가지의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리더십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한 후 리더십 유형 간 성격 5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5가지의 유형 모두에서 친화성과 성실성이 높았으며, 유형에 따라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5가지의 유형은 각각의 리더십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문선(2017)는 성격 5요인 중 개방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높은 개방성과 성실성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리더십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Wolff와 Kim(2011)은 관계망 형성 행동과 성격 5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관계의 종류와 무관하게 개방성과 외향성이 관계망 형성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친화성의 경우 좁은 관계내의 관계망 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대외적인 관계망 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ris와 Vazire(2016)는 친화성이 이성관계 및 친구관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감은 외향성 및 친화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Yu et al., 2020).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지각된 지지 수준은 개인의 외향성, 신경증, 창의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예측하였다(Swickert et al., 2010).

공통체 의식 및 도덕성을 나타내는 가치관 및 태도 핵심역량과 성격 5요인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밝혀졌다(Kalshoven et al., 2011; Karim et al., 2008). Kalshoven 등(2011)은 실험 연구를 통해 도덕적인 행동과 성격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격 특성 중 성실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이 일관적으로 도덕적 행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었고, 세부적으로 성실성은 행동의 정당성을 명료화하고 역할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행동과 특히 상관이 높았으며, 친화성은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는 행동에서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성은 다른 성격 특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관이지만 전체적인 도덕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Kalshoven et al., 2011). 인터넷 상에서의 도덕적 행동과 성격 5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 보았을 때에도, 개방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이 비도덕적 행위와 부적 인 상관을 보였다(Karim et al., 2008).

종합하자면, 대학생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들은 선행 연구들에 따라 다른 성격 요인들과 상관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성격5요인 하위요인과 대학생 핵심역량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 제 3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12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기준 자료(김동일, 2022)를 기반으로 재분석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과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된 참가 희망자들 중 연구안내문 및 연구참여 동의서를 읽은 후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 96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문항 일관성이 떨어지는 3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약 21.54세(SD=2.67)이었고, 성별은 남학생 321명(34.7%), 여학생 605명(65.3%)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236명(25.5%), 2학년 206명(22.2%), 3학년 195명(21.1%), 4학년 이상 289명(31.2%)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21
	여	605
학년	1 학년	236
	2 학년	206
	3 학년	195
	4 학년 이상	289

## 제 2 절 측정 도구

### 1. 성격 5요인

본 연구에서 성격 유형(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안정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성격 5요인 이론(Costa & McCrae, 1992)에 기반하여 제작된 K-OCEAN 5요인 성격검사(김동일, 2020)가 적용되었다. K-OCEAN 5요인 성격검사는 기존의 성격 5요인 검사들에 비해 문항수를 간소화하고, 한국 사회·문화적 배경 및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검사는 ‘현실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굳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등의 개방성 25문항,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달성하기 위해 남보다 열심히 노력한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등의 성실성 25문항, ‘새로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편이다.’,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 등의 외향성 25문항,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보람을 느낀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편이다.’ 등의 친화성 25문항, 그리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요즘 별 일 아닌 데도 쉽게 화가 치민다.’ 등의 안정 욕구 5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본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해당 성격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안정 욕구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87, .90, .90, .79, .94이었다.

### 2. 대학생 핵심역량

본 연구에서 대학생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등(2009)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된 대학생 핵심역량 척도(김동일, 2020a)를 사용하였다. 척도에서 측정하는 대학생 핵심역량은 총 7개의 역량으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가치관 및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은 '나는 전공 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의 5문항, 논리적 사고력은 '나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본다.' 등의 5문항, 학습능력은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공부(업무)를 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창의성은 '수집된 정보(자원)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리더십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의 5문항, 대인관계능력은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잘 모르더라도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 등의 5문항, 마지막으로 가치관 및 태도는 '소속한 공동체에서 역할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등의 3문항으로 전체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본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해당 역량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 특성들의 타당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김동일, 2020b).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가치관 및 태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82, .84, .76, .82, .80, .74, .67 이었다.

### 제 3 절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Mplus 7.4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SPSS 25.0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 변인간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첨도, 왜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잠재프로파일 분석 후 집단 간 성격 5요인 간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성격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MPlus 7.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성격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잠재집단 수를 도출하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때 투입하는 성격 요인들(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 안정 욕구)은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Van den Akker et al., 2013).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준으로 정보 지수인 AIC, BIC, SABIC와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 값, 그리고 k개 집단 모형과 k-1개 집단 모형을 비교하는 조정된 차이 검증(LMR-LRT), 그리고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LRT)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근거와 잠재집단의 비율 및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공변인 추가 시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분류오류를 고려하는 새로운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Asparouhov & Muthen, 2014; Vermunt, 2010). 집단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행할 때 DU3STEP 방법을 적용한 보조접근법(auxiliary approach)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활용한 DU3STEP 방법은 종속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잠재프로파일 분류가 변화하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종속 변수에서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분석법이다.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1.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성격 5요인, 대학생 핵심역량,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첨도, 왜도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주요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Kline, 2010).

<표 2> 주요 변인 기술통계량(N=926)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성격 5요인	개방성	3.29	0.50	1.76	4.80	.213	.059
	성실성	3.61	0.53	1.88	5.00	-.096	-.189
	외향성	2.98	0.56	1.36	4.88	.049	-.097
	친화성	3.57	0.38	2.00	5.00	-.114	.574
	안정 욕구	2.42	0.52	1.24	4.38	.271	-.126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3.42	0.72	1.00	5.00	-.262	.091
대학생 핵심역량	학습능력	3.78	0.60	1.40	5.00	-.281	.510
	창의성	3.46	0.69	1.00	5.00	-.142	-.017
	리더십	3.74	0.64	1.20	5.00	-.184	.091
	대인관계능력	3.89	0.60	1.60	5.00	-.372	.497
	가치관 및 태도	3.90	0.64	1.33	5.00	-.338	.219



## 2.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3>에 제시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안정 욕구를 제외한 4가지 성격 요인(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은 .200-.404의 범위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안정 욕구는 성실성( $r=-.174, p<.01$ ), 외향성( $r=-.084, p<.05$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성과 친화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학생 핵심역량과 성격 5요인 간의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은 개방성( $r=.370, p<.01$ ), 성실성( $r=.443, p<.01$ ), 외향성( $r=.300, p<.01$ ), 친화성( $r=.203,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안정 욕구( $r=-.173,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논리적 사고력은 개방성( $r=.471, p<.01$ ), 성실성( $r=.511, p<.01$ ), 외향성( $r=.253, p<.01$ ), 친화성( $r=.258,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안정 욕구( $r=-.214,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습 능력은 개방성( $r=.372, p<.01$ ), 성실성( $r=.605, p<.01$ ), 외향성( $r=.245, p<.01$ ), 친화성( $r=.278,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안정 욕구( $r=-.284,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창의성은 개방성( $r=.599, p<.01$ ), 성실성( $r=.406, p<.01$ ), 외향성( $r=.359, p<.01$ ), 친화성( $r=.200,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안정 욕구( $r=-.069,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리더십은 개방성( $r=.349, p<.01$ ), 성실성( $r=.652, p<.01$ ), 외향성( $r=.391, p<.01$ ), 친화성( $r=.345,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안정 욕구( $r=-.260,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 능력은 개방성( $r=.392, p<.01$ ), 성실성( $r=.406, p<.01$ ), 외향성( $r=.433, p<.01$ ), 친화성( $r=.444,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안정 욕구( $r=-.283,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및 태도는 개방성( $r=.381, p<.01$ ), 성실성( $r=.379, p<.01$ ), 외향성( $r=.306, p<.01$ ), 친화성( $r=.432,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안정 욕구( $r=-.184,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분석 결과(N=9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개방성	1											
2. 성실성	.319**	1										
3. 외향성	.404**	.320**	1									
4. 친화성	.244**	.365**	.200**	1								
5. 안정 욕구	0.064	-.174**	-.084*	-0.040	1							
6.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370**	.443**	.300**	.203**	-.173**	1						
7. 논리적 사고력	.471**	.511**	.253**	.258**	-.214**	.547**	1					
8. 학습 능력	.372**	.605**	.245**	.278**	-.284**	.470**	.689**	1				
9. 창의성	.599**	.406**	.359**	.200**	-.069*	.475**	.595**	.594**	1			
10. 리더십	.349**	.652**	.391**	.345**	-.260**	.476**	.568**	.682**	.522**	1		
11. 대인관계능력	.392**	.406**	.433**	.444**	-.283**	.376**	.495**	.527**	.428**	.601**	1	
12. 가치관 및 태도	.381**	.379**	.306**	.432**	-.184**	.344**	.469**	.479**	.404**	.539**	.651**	1

\*\* p<.01, \*p<.05

## 제 2 절 성격 잠재프로파일 분석

### 1.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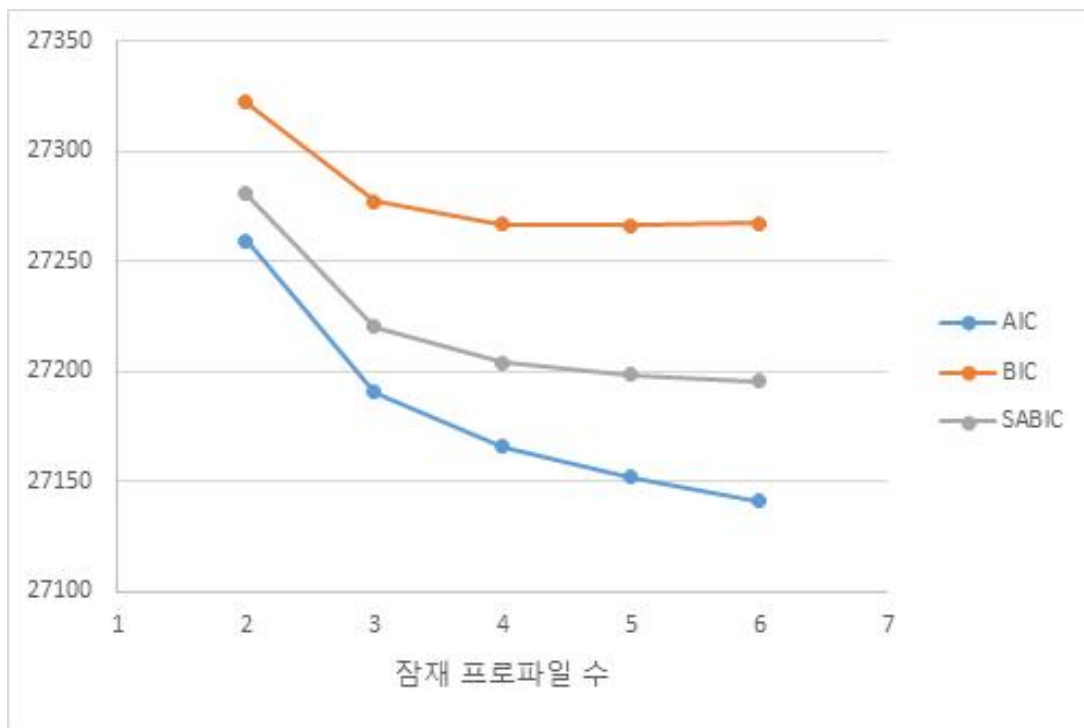
성격(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류 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 적합도 지수(AIC, BIC, SABIC), 분류의 질(Entropy), 모형적합도 검증(LMR-LRT, BLRT) 유의확률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정보 적합도 지수인 AIC, BIC, SABIC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Nylund et al., 2007). 잠재 프로파일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Entropy 지수를 이용하는데, 이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 프로파일 집단의 정확한 분류를 의미한다. LMR-LRT와 BLRT는 잠재 프로파일의 수  $k$ 와 잠재 프로파일의 수  $k-1$ 에서 추정된 두 모형을 비교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p$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k$ 인 잠재 프로파일의 모형이 채택된다(Nylund et al., 2007). 또한 잠재 프로파일의 분류 비율을 고려하여, 최소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적합한 잠재 프로파일 수로 선택할 수 있다(Jung & Wickrama, 2008).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격 5요인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안정 욕구의 관계가 2개에서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가장 적합한 잠재 프로파일 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비교하였다.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한 모형 적합도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2개에서 6개로 증가할수록 정보 적합도 지수인 AIC와 SABIC는 점점 감소하였다. BIC의 경우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4개에서 6개로 증가할 때 거의 변화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정보 적합도 지수 중 AIC와 SABIC는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6개일 때, BIC는 4개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잠재 프로파일의 수에 대한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 지수는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잠재 프로파일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k개와 k-1개일 때 추정된 모형 간 비교지수인 LMR-LRT의 p값은 프로파일의 수가 5개 이상일 때부터 p값이 유의수준 0.05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BLRT의 p값은 2개에서 6개의 잠재 프로파일의 수 모두에서 p값이 유의하였다(p-value < .05). 마지막으로, 잠재 프로파일 별 분류 비율은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2-4개인 경우 최소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 기준치인 5%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모든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 AIC, BIC, Entropy 지수도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LMR-LRT 및 BLRT의 p값이 모두 유의하였다.



[그림 1] 잠재 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 정보 적합도 지수

<표 4>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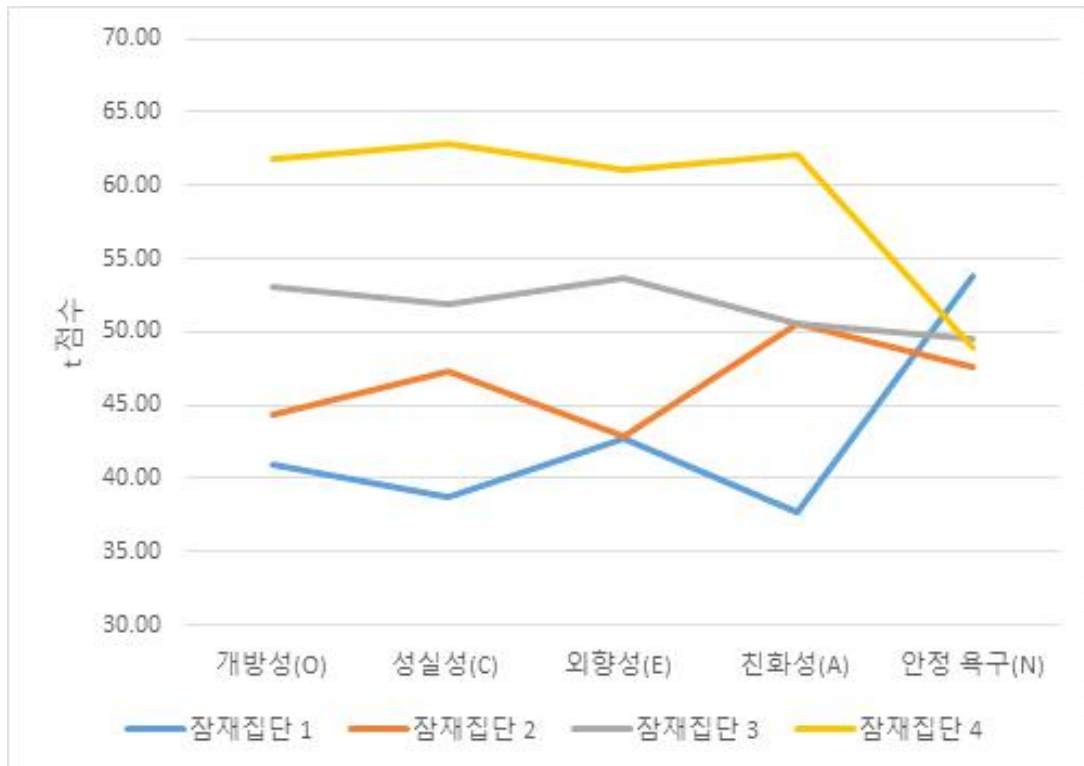
모형	모형 적합도 지수			분류의 질 Entropy	모형비교		하위집단별 최대/최소 비율(%)
	AIC	BIC	SABIC		LMRT (p-value)	BLRT (p-value)	
2	27259.2	27322.0	27280.7	0.547	0.000	0.000	51.3/48.7
3	27190.3	27277.3	27220.1	0.652	0.000	0.000	65.5/10.3
4	27165.7	27266.8	27203.7	0.693	0.033	0.000	52.4/8.3
5	27151.8	27266.1	27198.2	0.632	0.433	0.000	48.4/3.7
6	27140.7	27267.1	27195.3	0.679	0.214	0.013	45.1/3.3

## 2. 잠재 프로파일 양상 및 명명

LPA으로 도출된 성격(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의 양상에 관해 잠재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비율과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하위요인들의 t점수 평균 및 표준오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양상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5>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하위요인 평균 및 표준오차

	잠재집단 1 (11.8%)		잠재집단 2 (27.4%)		잠재집단 3 (52.5%)		잠재집단 4 (8.3%)	
	M	S.E.	M	S.E.	M	S.E.	M	S.E.
개방성	40.88	1.90	44.35	1.70	53.13	0.95	61.87	3.01
성실성	38.77	2.36	47.34	3.33	51.89	1.00	62.86	1.59
외향성	42.71	3.22	42.88	2.66	53.63	1.03	61.00	2.20
친화성	37.75	5.08	50.61	2.00	50.52	0.92	62.14	2.41
안정 욕구	53.75	0.91	47.68	2.95	49.51	0.49	49.00	2.08



[그림 2]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양상 (t 점수 변환)

각각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잠재집단 1은 잠재 프로파일 유형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비율(11.8%)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 1에 속한 집단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수준이 모두 평균에 비해 1표준편차 낮고, 안정 욕구는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고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며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며 끈기와 인내력이 부족하여 판단 등을 보류하는 성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잠재집단 1은 ‘보류집단(reserved)’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는 잠재 프로파일 유형 중에서 2번째로 많은 비율(27.4%)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잠재집단 2에 속한 집단은 개방성과 외향성이 평균에 비해 1표준편차 낮고, 성실성, 친화성, 안정 욕구가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인에게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내향적인 성향으로 타인 및 환경에 대한 조심성이 크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

보단 안정을 추구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루어내는 성실함을 보인다. 따라서 잠재집단 2는 ‘과잉통제집단(over-controlled)’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은 잠재 프로파일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52.4%)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잠재집단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안정 욕구 모두가 평균수준을 나타내며, 이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내면에 대한 관심이 균형을 이루며, 이를 적절히 이뤄가는 추진해나가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잠재집단 3은 ‘평균집단(averaged)’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4는 잠재 프로파일 유형 중 가장 작은 비율(8.3%)의 집단으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모두가 평균보다 1표준편차가 높고 안정 욕구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도 열린 편이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도전과 변화를 즐기며 실제로 수행을 해내는 것에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잠재집단 4는 ‘적응집단(well-adjusted)’으로 명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집단 간 하위요인의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와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표 6>.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개방성( $F=234.95$ ,  $p\text{-value} < .05$ ), 성실성( $F=190.19$ ,  $p\text{-value} < .05$ ), 외향성( $F=299.85$ ,  $p\text{-value} < .05$ ), 친화성( $F=193.34$ ,  $p\text{-value}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형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방성은 적응집단(잠재집단 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평균집단(잠재집단 3)이 높았다. 보류집단(잠재집단 1)과 과잉통제집단(잠재집단 2)는 외향성 수준이 프로파일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실성은 적응집단(잠재집단 4), 평균집단(잠재집단 3), 과잉통제집단(잠재집단 2), 보류집단(잠재집단 1) 순으로 높았다. 외향성은 개방성과 마찬가지로 적응집단(잠재집단 4), 평균집단(잠재집단 3) 순으로 높았으며, 보류집단(잠재집단 1)과 과잉통제집단(잠재집단 2)는 프로파일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친화성은 적응집단(잠재집단 4)에서 가장 높았고, 보류집단(잠재집단 1)이 가장 낮았다. 평균집단(잠재집단 3) 및 과잉통제집

단(잠재집단 2)는 적응집단보다 낮고 보류집단 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안정 욕구(F=2.290, p-value = .077)는 집단 간 평균 차이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6>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하위요인 ANOVA 분석 결과

	보류 집단 n=106		과잉통제 집단 n=241		평균 집단 n=517		적응 집단 n=62		df	F	사후검증 (Scheffe)	
	M	SD	M	SD	M	SD	M	SD				
개방성	2.81	0.35	2.94	0.35	3.47	0.39	3.98	0.46	2	922	234.95***	1,2<3<4
성실성	2.94	0.42	3.45	0.42	3.73	0.42	4.41	0.35	2	922	190.19***	1<2<3<4
외향성	2.58	0.50	2.46	0.32	3.22	0.40	3.69	0.50	2	922	299.85***	1,2<3<4
친화성	3.02	0.27	3.62	0.27	3.60	0.31	4.10	0.30	2	922	193.34***	1<2,3<4
안정 욕구	2.73	0.51	2.42	0.51	2.39	0.51	2.67	0.65	2	922	2.290	

F검증 유의수준 \*\*\* p-value<.001, 사후검증 <.05

1: 보류집단, 2. 과잉통제집단, 3. 평균집단, 4. 적응집단



### 제 3 절 성격 프로파일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차이

LPA를 기반으로 도출된 4개의 성격 프로파일 유형 간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DU3STEP 방법을 적용한 보조접근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성격 프로파일 유형 별 대학생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7>와 같다.

분석 결과, 7가지의 대학생 핵심역량은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프로파일 별 세부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chi^2=180.495$ ,  $p<.001$ ), 논리적 사고력( $\chi^2=182.816$ ,  $p<.001$ ), 학습능력( $\chi^2=264.276$ ,  $p<.001$ ), 가치관 및 태도( $\chi^2=320.026$ ,  $p<.001$ )는 적응 집단이 가장 높고, 보류 집단이 가장 낮았다.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의 경우 적응 집단에 비해 낮고 보류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창의성( $\chi^2=350.190$ ,  $p<.001$ )은 적응 집단, 평균 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보류 집단과 과잉통제 집단은 다른 두 잠재집단에 비해 낮았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chi^2=331.803$ ,  $p<.001$ )과 대인관계능력( $\chi^2=384.965$ ,  $p<.001$ )은 적응 집단, 평균 집단, 과잉통제집단, 보류 집단 순으로 높았다.

<표 7>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차이

대학생 핵심역량	보류 집단 n=106		과잉통제 집단 n=241		평균 집단 n=517		적응 집단 n=62		X <sup>2</sup>	사후검증
	M	SE	M	SE	M	SE	M	SE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2.81	0.06	3.31	0.32	3.50	0.03	4.27	0.08	180.495***	1<2,3<4
논리적 사고력	3.16	0.08	3.78	0.06	3.85	0.02	4.55	0.06	182.816***	1<2,3<4
학습능력	3.20	0.06	3.82	0.15	3.84	0.02	4.56	0.06	264.276***	1<2,3<4
창의성	2.81	0.05	2.46	0.28	3.58	0.03	4.33	0.07	350.190***	1,2<3<4
리더십	3.09	0.05	3.38	0.12	3.83	0.02	4.65	0.05	331.803***	1<2<3<4
대인관계능력	3.23	0.05	3.78	0.07	3.98	0.02	4.60	0.05	384.965***	1<2<3<4
가치관 및 태도	3.26	0.06	3.96	0.18	3.99	0.02	4.64	0.05	320.026***	1<2,3<4

F검증 유의수준 \*\*\* p-value<.001, 사후검증 <.05

1: 보류집단, 2. 과잉통제집단, 3. 평균집단, 4. 적응집단

## 제 5 장 논의 및 제언

### 제 1 절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성격 5요인(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안정 욕구)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탐색하고, 각 성격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어떠한 대학생 핵심역량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사람중심접근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성격 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대학생 핵심역량(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가치관 및 태도) 간의 차이를 3단계 접근법(DU3STEP)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에 따라 4가지 잠재집단인 보류집단(잠재집단 1), 과잉통제집단(잠재집단 2), 평균집단(잠재집단 3), 적응집단(잠재집단 4)으로 분류되었다. 보류집단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집단 중 세 번째로 많은 집단으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수준이 낮고, 안정 욕구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잉통제집단은 4가지 잠재집단 중 두 번째로 많은 집단으로, 개방성과 외향성 수준이 낮고, 성실성, 친화성, 안정 욕구 수준이 평균으로 나타났다. 평균집단은 전체 집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안정 욕구 수준이 평균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응집단은 전체 집단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수준이 높고, 안정 욕구 수준이 평균으로 나타났다.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하위요인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방성과 외향성은 적응집단, 평균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보류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은 가장 낮았다. 성실성은 적응집단, 평균집단, 과잉통제집단, 보류집단 순으로 높

았으며, 친화성은 적응집단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이 높았으며, 보류집단이 가장 낮았다. 안정 욕구는 4 잠재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도출된 성격 5요인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성격 요인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의 성격 잠재집단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성격프로파일 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었던 프로파일 유형과 유사하였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수준이 낮고 안정 욕구가 다른 성격 요인들에 비해 높은 보류 집단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었던 ‘보류하는(reserved) 집단(Merz & Roesch, 2011; Zhang et al., 2015)’, ‘통제결여(undercontrolled) 집단(Altmann et al., 2013)’, ‘낮은 적응 집단(이명숙, 최효식, 연은모, 2019)’, ‘소극적 집단(정지해, 김지태, 2019)’와 유사하였다. 과잉통제집단은 개방성과 외향성 수준이 낮고 성실성, 친화성, 안정 욕구가 평균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과잉통제(over-controlled) 집단(Leikas & Salmela Aro, 2014; Herzberg & Roth, 2006; Asendorpf et al., 2001)’과 유사하였다. 평균집단은 모든 성격 요인들이 평균 수준이라는 점에서 ‘평범한(ordinary) 집단(Zhang et al., 2015; Perara et al., 2015; Wall et al., 2019; 오현성, 박명은, 김재철, 조현경, 2020)’, ‘평균적인(averaged) 집단(Gramzow et al., 2004; Leikas & Salmela Aro, 2014, 정지해, 김진태, 2019)’와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응집단은 안정 욕구를 제외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되었던 ‘적응력이 우수한(well-adjusted) 집단(Merz & Roesch, 2011; Perera et al., 2015; Ferguson & Hull, 2018)’, 혹은 ‘회복탄력적인(resilient) 집단(Leikas & Salmela Aro, 2014; Altmann et al., 2013; Zhang et al., 2015)’와 유사하였다. 종합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잠재집단은 명칭의 차이가 있으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격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파일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격 5요인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은

적응집단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이, 그리고 보류집단이 가장 낮았다.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집단 별 성실성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적응집단, 평균집단, 과잉통제집단, 보류집단 순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성실성이 학업적 성취 및 전공 내 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Kornaraju et al., 2019; Trapmann et al., 2007). 하지만, 성실성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비슷한 수준의 친화성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친화성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학업적인 측면에서 주변 성인 및 동료들로부터 도움추구행동을 많이 시도함으로써 높은 학업적 수행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Smidt, 2015; Farsides & Woodfield, 2003). 따라서, 성실성의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비슷한 수준의 친화성이 학업적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리적 사고력은 적응집단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이, 그리고 보류집단이 가장 낮았다.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논리적 사고력에 성실성과 친화성이 논리적·통합적 사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Roslan et al., 2021; Charmorro-Premuzic & Reichenbacher, 2008).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다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단계를 정리해나가면서 추진해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친화성이 높은 경우,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Roslan et al., 2021; Charmorro-Premuzic & Reichenbacher,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집단 중 성실성의 수준에서는 다소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친화성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던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에

서의 논리적 사고력 수준이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능력은 적응집단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평균집단과 과잉 통제집단이, 그리고 보류집단이 가장 낮았다.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은 성실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데(Bidjerano & Yun Dai, 2007; Chamorro-Premuzic & Furnham, 2009),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대체적으로 성실성의 수준과 유사하게 집단 차이가 발생하였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 자신의 동기, 인지, 행동 측면에서 뛰어난 조절능력을 보인다(McCrae & Costa, 1983). 이러한 특성으로 성실성이 높은 적응집단에서 가장 높은 학습능력 수준을 보이며, 성실성이 낮은 보류집단에서 가장 낮은 학습능력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 학습능력은 단순히 성실성뿐 아니라, 친화성과 외향성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Premuzic & Furnham, 2009; 최보라, 2014). 친화성은 목표 추구를 위해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며, 외향성은 동기와 인지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습능력의 문항들이 “13. 나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14.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공부(업무)를 할 수 있다.,” “15. 자신의 행동과 학습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와 같이 행동조절의 측면에서 자기조절능력을 보았다는 점에서 잠재집단 간의 학습능력 차이에는 친화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실성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친화성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평균집단과 과잉통제 집단의 학습능력은 성실성과 친화성이 학습능력 수준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은 적응집단, 평균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과잉통제집단과 보류 집단은 가장 낮은 창의성 수준을 보이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격 5요인 중 개방성과 외향성이 창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윤정진, 김경은, 2012; 성은

현 외, 2013).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추구하고 변화에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Miserandino, 2013).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기서 오는 자극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McCrae & Costa, 1983). 창의성은 정해져 있던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Miserandino, 2013)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집단들 중 개방성과 외향성이 가장 높은 적응집단에서 창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두 성격 요인이 낮았던 보류집단과 과잉통제집단에서 창의성 수준이 가장 낮게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은 적응집단, 평균집단, 과잉통제집단, 보류집단 순으로 높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리더십의 다양한 유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으로 성실성을 꼽는다는 점에서(권선영, 2009; 하문선, 2017; Hassan et al., 2016), 성실성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 간 리더십의 차이가 발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개방성, 친화성, 외향성 모두가 리더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권선영, 2009; 하문선, 2017; Hassa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개방성과 외향성 수준이 가장 높았던 적응집단에서 리더십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개방성 수준이 낮았던 보류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은 평균집단 및 적응집단에 비해 낮은 리더십 수준을 보였다. 또한, 친화성이 가장 높았던 적응집단에서 리더십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친화성이 낮았던 보류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리더십 수준이 낮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잠재집단 별 리더십의 수준은 성실성뿐만 아니라 개방성, 친화성, 외향성의 영향을 포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적응집단, 평균집단, 과잉통제집단, 보류집단 순으로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격 5요인 중 친화성과 외향성이 대인관계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Wolff & Kim, 2011; Harris & Varize, 2016)에서, 본 연구에서 친화성과 외향성이 높았던 집단에서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대인관계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단, 개별적인 요인들로만 보았을 때는 친화성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던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 중 과잉통제집단이 평균집단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낮았다는 점, 그리고 외향성 수준이 차이가 없었던 과잉통제집단과 보류집단 중 과잉통제집단이 보류집단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세 집단의 독특한 성격 요인 수준과 대인관계능력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결국 특정한 성격 요인이 개인의 대인관계능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성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대인관계 내에서 지각된 사회적 관계 수준에는 외향성, 창의성, 인정 욕구 간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끼친다는 Swickert 외(2010)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가치관 및 태도 핵심역량은 적응집단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평균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그리고 보류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가치관 및 태도에는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친화성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alshoven et al. 2011; Karim et al., 2008).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성향이 높으며,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다(Costa & McCrae, 1992). 가치관 및 태도와 성격 5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실성은 도덕적 행동을 준수하고 행동의 정당성을 명료화하는 행동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친화성은 타인을 공평하게 대하는 행동과 높은 상관 나타났다(Kalshoven et al., 2011). 가치관 및 태도는 성실성과 친화성이 가장 높았던 적응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성실성과 친화성이 가장 낮았던 보류집단에서 가장 낮았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 제 2 절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성격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중심적 접근 방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하여 성격 5요인에 기초한 잠재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의 잠재집단은 성격 5요인을 기반으로 한 성격 프로파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한 결과로써,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격의 잠재 프로파일에 대한 논의에 이론적인 도움을 주었고, 향후 성격 잠재프로파일을 활용한 연구들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성격 5요인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대학생 핵심역량 연구들에서는 독립 변인으로 환경 변인(수업의 질, 대외활동 수준, 동아리 참여, 대학 소재지 등)이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등)에만 초점을 맞추며, 성격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백평구, 2013; 이병식, 최정윤, 2008; 김안나, 이병식, 2003).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격 역시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현장 및 상담 장면에서의 성격 5요인 검사의 실무적 활용도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개인의 성격 5요인 잠재 프로파일 유형 결과는 대학생 핵심역량 측면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개발되고 제공되어왔다(백평구, 2013). 성격 5요인 검사를 통해 대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교육적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는 성격 5요인 프로파일 유형을 기반으로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고, 내담자의 자기 이해 및 성찰을 돕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제언하는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가지의 잠재집단은 집단 간 성격 요인들의 차이를 탐색한 결과,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안정 욕구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잠재 집단 간의 안정욕구 차이에 대해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안정 욕구가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격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Merz & Roesch, 2011; 이한우, 김정은, 2017; 오현성 외, 2020),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안정 욕구는 성격 잠재집단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Ferguson & Hull, 2019; 정지해, 김진태, 2019; 이석동, 2017). Becker(1999)와 Digman(1997)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간의 상관계수가 보통 수준 이상의 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안정 욕구는 다른 성격 요인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안정 욕구는 다른 요인들과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성격 요인이라는 논의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각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성격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안정 욕구의 영향력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학생 핵심역량에는 성격과 같은 개인내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환경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백평구, 2013; 이병식, 최정윤, 2008; 김안나, 이병식, 2003).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환경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그리고 성격간의 구조적 모형을 탐색함으로써 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대학생 핵심역량은 개인의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Baker와 Syrik(1984)는 대학생 활에서의 적응 및 수행 능력은 학문적 적응과 관계적 적응뿐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적응을 포함하는 다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생 핵심역량 하위요인은 학문적 및 관계적 적응을 위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적응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대학생들의 성격 잠재프로파일분석을 기반으로 대학생 핵심역량과 함께 정서적 적응 수준 및 개인의 정서적 적응 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진영, 정기수 (2017). 대학생 핵심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H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11(2), 475-504.
- 권선영 (2009). 대학생의 성격 특성과 셀프리더십의 관련성 및 셀프리더십이 수행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복지문화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영, 유태용 (2002). 성격의 5 요인과 조직에서의 맥락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2), 1-24.
- 김동일 (2020a). **대학생 핵심역량 척도 개발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동일 (2020b).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검증: 대학생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2020 대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김동일 (2022). **K-OCEAN 5요인 성격검사**. 서울: 인사이트.
- 김동일, 오현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 (2009). 대학 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아시아교육연구**, 10(2), 195-214.
- 김아영, 차정은 (2003). 교사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교육심리연구**, 17(2), 25-43.
- 김안나, 이병식 (2003). 대학생들의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 분석. **충청북도: 한국교육개발원**.
- 김안나, 이병식, 장수명, 박남기 (2002). **생애능력 형성을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질관리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충청북도: 한국교육개발원.
- 김연희, 이종경, 이하늘, 이선아 (2011). 대학생의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19(3), 177-196.
- 김영숙, 조한익 (2015).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인과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29(4), 845-871.

- 김지근, 이지원, 이기학 (2015).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2), 249-269.
- 김지효, 박성만 (2020). 학습공동체 수업에서 학업적 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학업적 유능 감의 잠재계층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 분석. **교양교육연구**, 14(6), 355-369.
- 김혜영, 이수정 (2013). 역량진단검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진단도구와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4), 139-172.
- 남창우, 박영희, 송지희 (2016). 대학생의 계열 및 학년별 비인지적 핵심역량 차이 분석: 자기관리 역량 및 대인관계 역량을 중심으로. **사고개발**, 12(3), 91-118.
- 노윤신, 리상섭 (2013). 대학생 역량진단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D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HRD 연구**, 15(3), 273-305.
- 모화숙, 박미라, 하대현 (2013). Big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7(3), 761-781.
-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자영 (2010). 5 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박지영 (2019). 대학생 성격 5 요인과 창의융합역량 간의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8), 371-380.
- 박지윤, 박용한 (2019).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격 5 요인 및 사회적 지지와 온· 오프라인 도움요청,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31, 527-553.
- 박혜정 (2018). 핵심역량 기반 대학 교양교육과정 설계 모형 연구: K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2), 65-87.
- 백평구 (201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대학생 개인 변인의 관계 및 특성. **교양교육연구**, 7(3), 349-387.
- 성은현, 신문기, 한운영 (2013). 유아교육과와 건축학과 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창의성. **창의력교육연구**, 13(2), 119-139.

- 소경희 (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 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교과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량 모델의 가능성 탐색. **비교교육연구**, 23, 153-175.
- 손수경, 신화용, 박지혜 (2019).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핵심역량 유형 분류 및 특징 분석-K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13(4), 95-117.
- 염정원, 조한익 (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 유순규, 김은주 (2016).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K-CESA 핵심역량,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9(2), 1-26.
-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 (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충청북도: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임후남, 최정윤, 여승수, 서영인, 고장완, 신현석, 한상임 (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 (I). 충청북도: 한국교육개발원.
- 윤정진, 김경은 (2012).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2), 117-128.
- 이귀숙, 도수정, 송현아 (2016). 대학신입생의 성격특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53-73.
- 이난 (2019). 대학생의 정서문제 및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교양교육연구**, 13(3), 125-145.
- 이명숙, 최효식, 연은모 (2019).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5 요인에 기초한 잠재적 성격 특성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3), 71-81.
- 이병식, 최정윤 (2008). 다층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의 영향 요인 분석: 대학교육 과정과 대학 특성 변인의 영향. 충청북도: 한국교육개발원.

- 이숙정 (2013).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6(1), 119-139.
- 이애화, 최명숙 (2014). 국내 대학생 핵심역량과 그 진단도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교육공학연구**, 30(4), 561-588.
- 이장익 (2012). 대학입학 전형제도 유형과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2), 73-96.
- 이장익, 김주후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연구. **직업교육연구**, 31(2), 227-246.
- 이찬, 정철영, 나승일, 김진모, 최유현, 전미란 (2009). **차세대 영재기업인 선발모형 개발 및 육성체계 구축**. 서울: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이혜주 (2021).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핵심역량,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33-43.
- 정순우 (2012). 중등교사의 성격 5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심리행동연구**, 4(2), 1-24.
- 진미석 (2013).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1), 105-127.
-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 최보라 (2014). 성격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21(5), 247-267.
- 최정윤, 이병식 (2009).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7, 199-222.
- 하문선 (2017). 여자대학생의 성격 5 요인과 정서지능, 리더십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5(2), 89-118.
- 하병학, 김경이, 박영신, 송성욱, 안현아 (2016).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교생활 및 학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 5-24.
- 황수영 (2021).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과 행복에 미치는 영

- 향: D 대학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85-100.
- 황지원, 김학진, 송오성 (2016).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교과목 성적과 K-CESA 핵심역량의 관계분석. *공학교육연구*, 19(4), 35-46.
- Alessandri, G., & Vecchione, M. (2012). The higher-order factors of the Big Five as predictors of job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6), 779-784.
- Altmann, T., Sierau, S., & Roth, M. (2013). I guess you're just not my type.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4(2), 105-117.
- Asendorpf, J. B., Borkenau, P., Ostendorf, F., & Van Aken, M. A. (2001). Carving personality description at its joints: Confirmation of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prototypes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3), 169-198.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
- Barbaranelli, C., & Caprara, G. V. (2000). Measuring the Big Five in self-report and other ratings: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6(1), 31.
- Benet-Martínez, V., & John, O. P. (1998). Los Cinco Grandes across cultures and ethnic groups: Multitrait-multimethod analyses of the Big Five in Spanish and Englis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729.
- Bhatti, M. A., Battour, M. M., Ismail, A. R., & Sundram, V. P. (2014).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big five) on expatriates adjustment and job performance.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33(1), 73-96.
- Bidjerano, T., & Dai, D. 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five model of personality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1), 69–81.
- Caspi, A., & Moffitt, T. E. (1993). When do individual differences matter? A paradoxical theory of personality coherence. *Psychological Inquiry*, 4(4), 247–271.
- Chamorro-Premuzic, T., & Furnham, A. (2009). Mainly Open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learning approach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4), 524–529.
- Chamorro-Premuzic, T., & Reichenbacher, L. (2008). Effects of personality and threat of evaluation on divergent and convergent think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4), 1095–1101.
- Clark, M. H., & Schroth, C. A. (2010). Examining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personality among college student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1), 19–24.
- Collins, L. M., & Lanza, S. T. (2009).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Vol. 718)*. John Wiley & Sons.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 Credé, M., & Niehorster, S. (2012).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4(1), 133–165.
- DeSeCo, O. E. C. 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OCDE–USAID. Retrieved from: <http://www.deseco.admin.ch/bfs/deseco/en/index/02.html>.
- DeYoung, C. G. (2006). Higher-order factors of the Big Five in a multi-informan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6), 1138.

- Erikson, K. (1986). On work and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1), 1-8.
- Farsides, T., & Woodfield, R. (2003). Individual differences and undergraduate academic success: The roles of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applic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7), 1225-1243.
- Ferguson, S. L., & Hull, D. M. (2018). Personality profil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to model personality typolo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2*, 177-183.
- Harris, K., & Vazire, S. (2016). On friendship development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0*(11), 647-667.
- Hassan, H., Asad, S., & Hoshino, Y. (2016). Effect of representative leadership styles on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commitment with the facilitating role of organizational maturity.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9*(4), 131-147.
- Herzberg, P. Y., & Roth, M. (2006). Beyond resilient, undercontrollers, and overcontrollers? An extension of personality prototype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0*(1), 5-28.
- Holloway, K., Bhullar, N., & Schutte, N. S. (201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dispositional hope and defense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4*, 151-154.
- Hong, R. Y., Paunonen, S. V., & Slade, H. P. (2008).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A multitrait - multimethod approac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2), 160-166.
- Judge, T. A., Higgins, C. A., Thoresen, C. J., & Barrick, M. R. (1999).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general mental ability, and career success across the life span. *Personnel psychology*, *52*(3),

621–652.

- Kalshoven, K., Den Hartog, D. N., & De Hoogh, A. H. (2011). Ethical leadership at work questionnaire (EL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The leadership quarterly*, *22*(1), 51–69.
- Kaplan, S. C., Levinson, C. A., Rodebaugh, T. L., Menatti, A., & Weeks, J. W. (2015). Social anxiety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of trust and opennes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4*(3), 212–222.
- Karim, N. S. A., Zamzuri, N. H. A., & Nor, Y. M. (2009).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ethics in university students and the big five model of personality. *Computers & Education*, *53*(1), 86–93.
- Lee-Baggley, D., Preece, M., & DeLongis, A. (2005). Coping with interpersonal stress: Role of Big Five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73*(5), 1141–1180.
- Leikas, S., & Salmela-Aro, K. (2014). Personality types during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How are they related to life situ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37*(5), 753–762.
- McCrae, R. R., & Costa Jr, P. T. (2004). A contemplated revision of the NEO Five-Factor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3), 587–596.
- Merz, E. L., & Roesch, S. C. (2011).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Modeling trait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8), 915–919.
- Mount, M. K., Barrick, M. R., Scullen, S. M., & Rounds, J. (2005). Higher order dimensions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the big six vocational interest types. *Personnel psychology*, *58*(2), 447–47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Paunonen, S. V., & Ashton, M. C. (2001). Big five factors and facet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3), 524.
- Perera, H. N., Granziera, H., & McIlveen, P. (2018). Profiles of teacher personality and relations with teacher self-efficacy, work engagement, and job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0*, 171–178.
- Poorthuis, A. M., Thomaes, S., Denissen, J. J., van Aken, M. A., & de Castro, B. O. (2014). Personality in Ac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0*(3), 169–177.
- Roslan, S., Hasan, S., Zaremohzzabieh, Z., & Arsad, N. M. (2021).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systems thinking ability of upper secondary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29*(S1), 251–269.
- Schmitt, D. P., Allik, J., McCrae, R. R., & Benet-Martínez, V. (2007).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atterns and profiles of human self-description across 56 n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2), 173–212.
- Semeijn, J. H., Van der Heijden, B. I. J. M., & De Beuckelaer, A. (2020). Personality traits and types in relation to career success: An empirical comparison using the big five. *Applied Psychology*, *69*(2), 538–556.
- Smidt, W. (2015).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the academic success of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41*(4),

385-403.

- Swickert, R. J., Hittner, J. B., & Foster, A. (2010). Big Five traits interact to predict perceive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6), 736-741.
- Thiele, L., Sauer, N. C., & Kauffeld, S. (2018). Why extraversion is not enough: the mediating role of initial peer network centrality linking personality to long-term academic performance. *Higher Education, 76*(5), 789-805.
- Trapmann, S., Hell, B., Hirn, J. O. W., & Schuler, H. (2007).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and academic success at university. *Journal of Psychology, 215*(2), 132-151.
- Wall, H. J., Campbell, C. C., Kaye, L. K., Levy, A., & Bhullar, N. (2019). Personality profiles and persuasion: An exploratory study investigating the role of the Big-5, Type D personality and the Dark Triad on susceptibility to persua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9*, 69-76.
- Wolff, H. G., & Kim,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behavior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7*(1), 43-66.
- Yu, Y., Zhao, Y., Li, D., Zhang, J., & Li, J.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Well-Being of Chinese Resi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Frontiers in Psychology, 11*, 1-8.
- Zhang, L. F. (2002). Thinking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Educational psychology, 22*(1), 17-31.
- Zhang, L. F. (2006). Thinking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revisit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177-1187.

Zhang, J., Bray, B. C., Zhang, M., & Lanza, S. T. (2015). Personality profiles and frequent heavy drinking in young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0*, 18-21.

Abstract

Difference in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Latent  
Profiles for Big Five  
Personality

Jinwoo Le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atent potential profile types of five personality factors of college students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by potential profile types of five personality factors. 960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online self-rated questionnaires, and 926 data were analyzed excluding data with

inconsistent questions. For the collected data, data analyses includ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LPA(Latent Profile Analysis) with auxiliary approach(DU3STEP), one way ANOVA, utilizing SPSS 25.0 and Mplus 7.4.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 LPA showed four latent groups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such as 'reserved group(latent group 1, 11.8%)', 'over-controlled group(latent group 2, 27.4%)', 'averaged group(latent group 3, 52.5%)', and 'well-adjusted group(latent group 4, 8.3%)'. Reserved group had a low level of openness,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and an average level of need for stability. In the over-controlled group, the level of openness and extroversion was low, and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and need for stability were found to be the average level. In the averaged group, openness,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and need for stability showed an average level. Finally, the well-adjusted group had a high level of openness,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and the average level of need for stability.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re competencies for college student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latent groups. Specifically, the well-adjusted group was the highest in 'knowledge of major field', 'logical thinking', 'learning ability', and 'values and attitude', followed by the averaged group and the over-controlled group. the reserved group was the lowest in. Creativity was higher in the order of well-adjusted group and averaged group than over-controlled group and reserved group. Leadership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ere high in the order of well-adjusted group, averaged group, over-controlled group, and reserved group.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First, the personality profil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confirmed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tha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in personality study. This result is meaningful that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reaffirmed, and it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future personality studie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ndividual internal variable, such as personality, affects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is results can provides the expanding discussion on variables affecting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ird, this study confirmed the difference in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profile type. Through this result, it will be possible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 individual's personality by using the Big Five personality test. In addition, it makes to identify strengths and weaknesses in core competencies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profile type and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accordingly.

**keywords : Big Five personality, Latent Profile Analysis, core competency**

***Student Number : 2020-21672***